


[제2018-69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8. 8.23(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ARI Project <한국전통국악 한마당> 개최

Sounds of Korea 2018 한국 전통 국악 한마당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한국전통국악 한마당” (Sounds of Korea 2018)
- ▶ 일 시 : 2018.9.7(금)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재미국악원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붙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열두번째 무대로 재미국악원(원장 이예근)을 선정하여 "한국전통국악 한마당" (Sounds of Korea 2018) 공연을 9.7(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한국전통국악 한마당" (Sounds of Korea 2018)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미국에서 활동중인 재미국악원 이예근 원장과 단원 10여명을 비롯하여 김중섭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구음회 회원 및 예술인 10여명 등 총 20여명이 함께 마련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경쾌한 타령장단으로 박자의 변화를 주어 선율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실내관현악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민속기악 독주곡인 함범수류 <해금산조>를 네명이 연주하는 해금제주,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예술 성악곡인 가곡중 계면조의 평롱,계락,편수대엽의 연주할수 있도록 변주한 생황과 단소의 생소병주 <수룡음>, 시조시를 사설로 하여 부르는 3장 형식으로 된 시조창 <평시조-녹수청산>, <지름시조-청조야>, 선율의 짜임이나 음색의 변화, 시김새의 표현이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는 거문고독주-한갑득류 <산조>, 이선희 작곡, 작사, 노래로 영화 "왕의 남자"의 OST에 나온 해금과 가야금 합주곡 <인연>, 고려시대 중국에서 수용된 이래 궁중의례와 연회에서 연주되거나 궁중무용의 반주에 사용된 곡인 삼병주 <보허자>, 창작음악 <꽃분네야, 사명, 십자가전달자, Amazing Grace, 아리랑메들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을 기획한 이예근 원장은 "이번 공연은 지난 45년 동안 한인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전통음악과 강습 및 공연 등을 통해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온 재미국악원의 32번째 정기공연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한국명품 공연을 통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이 지니고 있는 귀한 문화 유산중 한국음악을 빼놓을수 없습니다.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마음껏 즐겨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전통국악 한마당 (프로그램 및 해설)

1. 관현악 '천년만세' 집박: 이에근

피리: 이태준, 윤정림 / 대금: 김경숙 / 해금: 박영안, 김미자 / 거문고: 고은비, 손서윤 /

가야금: 나소정, 윤용희 / 단소: 구자윤 / 양금: 조정민 / 장구: 김중섭

국악이 대부분 방중악* 이듯이 이 곡은 특히 세피리와 단소를 포함한 실내악 편성으로 경쾌한 타령 장단으로 박자의 변화를 주어 선율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방중악(房中樂)

거문고와 가야금 등이 중심이 되어 방 안에서 연주하는 조용하고 정결한 음악

2. 해금제주 '산조'(한범수 류)

김미자, 김릿다, 최혜정, 이안복

해금 산조는 해금을 장구 반주에 곁들여 연주하는 즉흥성을 띤 민속 기악 독주곡이다. 해금 산조는 지용구의 해금 시나위에서 비롯되어 지영희(1909 -1979), 한범수(1911-1980)에 의해 완전한 산조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금 산조에서는 대나무 공명통의 울림과 활대로 문질러 질러 소리를 내는 명주실현의 다양한 음색이 어울려 연주자의 예민한 음악적 감성이 유감없이 표출된다.

3. 생소병주 '수롱음'

단소: 구자윤 / 생황: 고은비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예술 성악곡인 가곡중 계면조의 평롱,계락,편수대업을 연주할수 있도록 변주한 음악이다. 생황은 한국의 전통악기중 유일한 화음악기로, 깊고 부드러운 음색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늘거리듯 맑고 고운 단소의 가락과 잘 어우러지는 곡이다.

4. 시조창 '평시조'(녹수청산), '지름시조'(청조야)

창: 변진심 / 단소: 김중섭

시조는 시조시를 사설로 하여 부르는 3장 형식으로 된 노래이다. 처음에는 평시조만이 있었으나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 여러형태의 시조가 발생하였다.

*지름시조(一時調)

전통음악에서 시조창(時調唱)을 가리키는 용어

**사설시조(辭說時調)

조선 말기에 시조(時調)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유행했던 여러 종류의 가곡 가운데 하나

5. 거문고 독주 '산조'(한갑득 류)

거문고: 고은비 / 장구: 이에근

거문고는 고구려때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선비들이 수양을 위해 연마하는 악기로 사랑받아 왔다. 오동나무 공명통 위에 작은 막대나무를 붙인 "괘" 위의 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얇은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쥐고 줄을 치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데 가야금에 비해 낮고 묵직한 느낌을 준다. 산조는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현할수 있기 때문에 민속음악의 꽃"이라고도 한다. 한갑득 류 거문고 산조는 선율의 짜임이나 음색의 변화, 시김새의 표현이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해금과 가야금 합주 ‘인연’ (Destiny)

Hwieun Kim, Eunice Lee, Dayeon Hwang, Thomas Shin, Daniel Son, Audrey Noh,
Nuri Chin, Joyce Kang, Amy D. Seung, Gene H. Lee, Kevin Y. Park

이 곡은 이선희 작곡, 작사, 노래로 영화 "왕의 남자"의 OST에 나온 곡으로 영화와 함께 해금 소리를 알리는데 일조한 곡이다.

7. 삼병주 ‘보허자’

당피리: 이예근 / 아쟁: 박영안 / 당적: 김종섭

보허자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수용된 이래 궁중의례와 연회에서 연주되거나 궁중무용의 반주에 사용된 곡이다. 본래 가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악편성에 편종과 편경을 곁들인 기악곡 또는 창사가 곁들여진 형태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년을 함께해오는 동안 거의 향악화 되긴 했어도 어딘지 모르게 이방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궁중음악이다.

8. 창작음악 ‘꽃분네야’, ‘사명’, ‘십자가전달자’, ‘Amazing Grace’, ‘아리랑메들리’

노래: 변진심 / 대금: 김경숙 / 거문고: 고은비 / 신디: 조정민

꽃분네야는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 하는 꽃분네의 슬픔을 그린 민요풍의 창작 국악 가요이며, 사명, 십자가전달자, Amazing Grace와 아리랑메들리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신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내용과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으로 고국의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다.

* 프로그램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미국악원>

재미국악원은 1973년에 창립됐다. 재미국악원 단원들은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을 포함한 전문 국악인들이다.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현지인, 동포들에게 국악 강습회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동포 2,3세대들에게 국악 강습을 통해 한국문화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예근 (재미국악원 원장)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현 국립국악중.고등학교) 1기 출신인 이예근 원장은 국립국악원에서 피리를 전공했다. 1979년 미국으로 이주, 재미국악원을 창설한 후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타 커뮤니티에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동포 2,3세대들에게 국악 강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예근 Lee Paul
재미국악원 원장



아쟁: **박영안**
Park Young Ahn



피리: **이태준**
Lee Tae Joon



해금: **김미자**
Kim Mi Ja



피리: **윤정림**
Yoon Jung Rim



가야금: **나소정**
Na So Jung



가야금: **윤용희**
Yun Yong Hee

구음회 초청



김중섭 Kim Joong Sup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기능보유자



변진심 **Byun Jin Sim**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 경제시조 보유자



대금: **김경숙**
Kim Kyoung Sook



양금, 신나: **조정민**
Jo Jeong Min



거문고, 생황: **고은비**
Go Eun Bi



소금, 단소: **구자윤**
Koo Ja Youn




한국 전통 국악 한마당

Sounds of Korea 2018

The 32nd Concer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Promoted by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itute of America



구음회 초청



이예근 Lee Paul
재미국악원 원장



아쟁: 박영안
Park Young Ahn



피리: 이태준
Lee Tae Joon



해금: 김미자
Kim Mi Ja



피리: 윤정림
Yoon Jung Rim



가야금: 나소정
Na So Jung



가야금: 윤용희
Yun Yong Hee



김중섭 Kim Joong Sup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기능보유자



변진심 Byun Jin Sim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 경제시조 보유자



대금: 김경숙
Kim Kyoung Sook



양금, 신나: 조정민
Jo Jeong Min



거문고, 생황: 고은비
Go Eun Bi



소금, 단소: 구자윤
Koo Ja Youn

Friday, September 7, 2018 at 7:30pm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3rd Fl. Ari Hall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Co-Hosted b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itute of America

Online Reservation: www.kccla.org | For more info: tammy@kccla.org | 323.936.3015